

뉴욕총신대학교 설립 40주년 기념회 40th Anniversary, Chongshi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주후 2019년 12월 3일(화)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와 축하행사가 3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진행됐다.

뉴욕총신대학교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행사 성료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정의수 목사, 이사장 하경빈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와 축하행사가 3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총장 정의수 목사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근본으로 신앙하는 뉴욕총신대학교”의 제2차 40년의 단계적 비전을 제시했다. 정 총장은 학교 본관 및 부속관 마련을 계속 추진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우수 학교와의 결연과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적 개혁주의 신학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동문들의 목회 실습 및 공동 사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뉴욕총신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의수 목사와 강유남 목사의 극적인 만남이었다. 불과 1년 여 전까지, 두 목사는 뉴욕총신을 떠난 선장과 부선장이었다. 정의수 목사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강유남 목사였다. 그러나 강유남 목사의 출판 기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두 목사는 갈라섰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의수 목사는 강유남 목사를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총장 직에서 해임하고, 강유남 목사가 운영하고 있던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뉴저지 분교를 본교에 통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강유남 목사는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노회를 창립했고, 그동안 정의수 목사와 강유남 목사가 같이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는 강유남 목사를 지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종회(종회장 정신구 목사)와 정의수 목사를 지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로 양분되었다.

소원했던 정의수·강유남 목사 극적 만남

2019년 12월 3일(화)



이날 행사는 하이라이트는 정의수 목사(오른쪽)와 강유남 목사(왼쪽)의 극적인 만남이었다.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뉴저지 분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중 일부는 총장 정의수 목사가 단행한 뉴저지 분교 본교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교로 옮겨 갔으나,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강유남 목사가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주기를 원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강유남 목사는 뉴저지 미주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설립하여, 금년 9월에 개교식을 거행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그동안 여하한 형태의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물꼬를 튼 것은 강유남 목사였다.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장을 역임했던 강유남 목사가 “동문회인데 가야지!”라며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런 강유남 목사를 정의수 목사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정의수 목사는 “여러 차례 강유남 목사님 꿈을 꾸었다. 어제는 8시간 동안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내내 강유남 목사님 꿈을 꾸었다”며 강유남 목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강유남 목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탄의 장

난이었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는지 모르겠다.”며 17년 동안 함께 했던 정의수 목사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뉴욕총신 설립 40주년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하 순서, 3부 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학장 윤성태 목사가 인도하고, 조공자 교수가 반주를 담당했다. 묵도, 신양 고백, 찬송, 정대영 목사(3회)의 기도, 뉴욕노회장 김종태 목사의 성경봉독, 재학생들의 특송, 종회장 엄기환 목사의 설교, 현금, 권영길 목사(1회)의 봉헌기도, 총장 정의수 목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엄기환 목사는 시편 57편 7-8절을 본문으로 “새벽을 깨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는 총동문회장 이대길 목사(7회)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됐다. 김학인 목사(14회)의 환영사, 정의수 총장의 40주년 보고, 뉴욕모자이크교회 중창단의 영광송, 정순원 목사(1회)와 허상희 목사(3회)의 축사, 조공자 교수의 축송, 동문들이 함께 부른 감사송, 뉴욕원로목사회장 김용걸 신부와 뉴욕목사회장 이준성 목사의 내빈 인사, 이재덕 목사(2회)의 격려사, 교수 인사, 학우회장의 교수들에 대한 선물증정, 감사패와 평생 이사패 수여, 건축 기금과 장학금 전달, 박희근 교수의 광고, 강유남 목사의 인사, 찬송, 이사장 하경빈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교훈 아래 1979년 3월 미주 복음화 및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금껏 15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13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